인문연구 제93호
Journal of the Humanities
2020. Vol. 93, No. 1, pp.149~186
http://dx.doi.org/10.21211/JHUM.93.6

『종달새의 노래』에 나타난 위반적 섹슈얼리티와 '미래 없음'에 대한 우생학적 불안*

김미연**

<차 례>

1. 서론
2. 우생학적 '건강함'과 '명백한 운명(Manifest Destiny)'
 1) 우생학적 혈통
 2) 우생학과 '명백한 운명'
3. '목소리'와 섹슈얼리티
 1) 이성애 규범을 위반하는 '캐더식 우정'
 2) '캐더식 우정'으로 본 '위반의 섹슈얼리티'
4. "미래 없음"에 대한 불안
5. 결론

【국문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윌라 캐더(Willa Cather)의 『종달새의 노래』(*The Song of the Lark*)에 나타난 우생학적 불안의 양상을 고찰하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과제번호)(NRF-2019S1A5B5A07093329)
**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강사

는 데 있다. 캐더의 동시대 우생학은 '명백한 운명'이라는 백인 정착민의 소명 의식 형성의 토대가 된다. 무엇보다도 이민자를 주인공으로 하는 캐더의 소설은 북유럽과 서유럽/남유럽과 동유럽을 위계화 하는 우생학적 영향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 논문은 먼저 소설의 인물과 사건을 중심으로 재현되는 우생학적 양상을 규명하고, 다음으로 섹슈얼리티를 매개로 펼쳐지는 미래에 대한 우생학적 불안의 측면을 고찰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섹슈얼리티 재현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소설은 동성 관계를 통한 도전적 섹슈얼리티와 동시에 그것의 전복적 의미를 봉합하는 이성애 규범 섹슈얼리티를 함께 포섭하고 있다. 이 논문은 이 모순적인 양상이 당대 우생학의 영향을 나타내는 동시대 불안의 그림자임을 밝히고자 한다.

주제어: 윌라 캐더, 『종달새의 노래』, 우생학, 이성애 규범성, 도착적 섹슈얼리티

1. 서론

자넷 샤리스태니언(Janet Sharistanian)에 따르면, 윌라 캐더(Willa Cather)가 소설을 쓰기 시작하던 시기에 서부 개척가의 경험을 그린 기존 작가의 대부분의 작품들은 "자연의 힘에 맞서는 남성 주인공의 의지를 드러내는 남성적 담론"이었다(xii). 캐더가 여성 인물의 입지전적 성공을 다루었던 것은 남성 작가들과 남성 평론가들이 주도하는 세계에서 선택한 그녀만의 방식이다. 『종달새의 노래』에서 캐더가 오로지 예술가로서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티어 크론보그(Thea Kronborg)의 재현에 "관능적"인 측면을 거의 포함하지 않은 것도 비슷한 맥락에 있다.

『오 개척자여!』(*O Pioneers!*)의 알렉산드라(Alexandra)가 "남성

용 긴 코트"를 즐겨 입는 모습 등으로 젠더 규범의 위반을 보여주는 것처럼, 티어 역시 단순히 "남성적"이지도 "여성적"이지도 않은 "불완전한 중간 목소리"(a faulty middle voice)를 가진 것으로 재현된다는 점에서 젠더 역전을 구현한다(252). 더욱이 티어에 대한 묘사는 단순히 남성적/여성적 젠더 규범을 위반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녀의 '목소리'를 매개로 한 섹슈얼리티의 문제는 규범적인 이성애의 대안적 가능성을 제시해준다. 정신분석적 관점에서 '목소리'는 '성애적'(erotogenic) 기관 중 하나에 해당하고 단순히 규범적 이성애로 설명되지 않는 섹슈얼리티의 매개가 된다. 이 작품에서 티어의 목소리 혹은 그녀의 노래는 주변 인물들의 욕망을 자극하고 일깨운다는 측면에서 이성애 정상성을 넘어서는 섹슈얼리티에 접근하는 통로가 된다.

섹슈얼리티에 관한 한 이 작품에는 '이성애적 결합'의 '불행한'(unpleasant or unhappy) 관계와 '유쾌함'(pleasantness)을 생산하는 또 다른 섹슈얼리티 사이의 대립이 존재한다. 이는 기존의 이성애적 관계를 낯설게 만들고 '퀴어화'(queering) 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예를 들면, 티어의 주변 인물로서 아치 부부(the Archies), 하사니 부부(the Harsanyis), 그리고 오텐버그 부부(the Ottenburgs)의 이성애적 '결혼'은 부정적으로 묘사한다. 캐더의 전기를 쓴 샤런 오브라이언(Sharon O'Brien)은 이와 같은 부정적 재현의 근거를 캐더와 주변 여성들과의 동성애적 성향에 둔다("Thing" 577). 물론 캐더 스스로 동성애에 대해 특별히 공감을 표현한 적은 없다.[1] 오

1) 캐더의 전기를 쓴 제임스 우드리스(James Woodress) 역시 캐더와 가장 가까웠던 세 명의 여성, 예를 들면 그녀가 작품을 쓸 수 있도록 후원자 역할을 해온 이사벨 맥클렁(Isabelle McClung), 뉴욕의 아파트에서 40년 가까이 함께 생활한 이디스 루이스(Edith Lewis), 작가인 엘리자베스 서전트(Elizabeth Sergeant)에 대해 상세히 서술하면서, 캐더의 이성애/동성애적 성향을 규정하는 "기록의 증거"(documentary evidence)는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81). 오브라이언 역시 대학 시절 만난 루이즈 파운드(Louise Pound)

히려 한때는 오스카 와일드의 동성애에 대해 비판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Sedgwick 168). 주목할 점은 적어도 이성애/동성애에 대한 캐더 자신의 명백한 입장 표명의 유무를 넘어서, 『종달새의 노래』에 나오는 티어의 목소리가 티어의 욕망을 표현하는 매개로서 그 자체로 여러 인물의 욕망을 자극하는 대안적 섹슈얼리티의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사실이다. 티어의 목소리 혹은 노래는 그 자체로 '무성적'(asexual)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성적이며'(sexual), 그런 의미에서 노래를 통해 구현되는 티어의 욕망은 '규범적인 이성애주의'(normative heterosexuality)를 넘어서는 일종의 '위반의 섹슈얼리티'의 측면을 보여준다.

한편 우생학적 이념이 팽배한 사회에서 이런 '위반의 섹슈얼리티'는 논쟁적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생학의 관점에서 생식가능한 섹슈얼리티로서 '이성애'가 아닌 여타의 섹슈얼리티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생학은 우월한 유전자를 상속해 주는 일을 의무로 부과하며, 이성애적 규범에 어긋나는 모든 성향을 비우생적인(dysgenic) 자질로 규정한다. 따라서 '건강한 이성애'와 '건강하지 않은' 동성애라는 위계가 발생한다.[2] 『종달새의 노래』는 몇

에게 보낸 캐더의 편지를 분석하며, 캐더의 레즈비언 섹슈얼리티의 근거를 주장하면서도 캐더 스스로는 한 번도 자신의 레즈비어니즘에 대해 공식적으로 밝힌 적이 없음을 지적한다(590). 오브라이언은 이전 세대와 달리, 동시대 의학 서적들이 '동성애'를 '일탈'(deviant)로 다룬 점을 캐더가 의식했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사랑을 언급하지 않는 자기 검열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으로 분석한다(586).

2) 낸시 오도버(Nancy Ordover)는 "퀴어"에 대한 분석에서 우생학과 동성애의 모순적인 관계를 지적한다. 예컨대 그에 따르면 동성애가 유전이 아닌 세균에 의한 것이라는 기존 과학자들의 입장에 대해, 동성애는 타고난 것이라는 우생학의 연구가 퀴어의 소수화를 해방시켜 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났다(Ordover 59-61). 반면에 1930년대 미국에는 '성감별 시험'(M/F test)을 통해 남성성/여성성을 수치화함으로써, 잠재적 동성애를 치료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즉 우생학자들은 '건강한 이성애'와 '건강하지 않은 동성애'를 구별하려 했다(Kline 139).

가지 측면에서 이런 위반의 섹슈얼리티와 우생학적 재생산의 이념 사이의 갈등과 긴장을 보여준다. 게다가 이 소설의 「에필로그」에 제시된 이성애적 결합,[3] 즉 스웨덴 이민자 출신의 티어와 독일계 이민자 출신의 오덴버그의 결혼은 목소리를 매개로 한 위반적 섹슈얼리티의 구현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이 『오 개척자여!』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우생학의 주요 관심사인 '미래 없음'[4]의 불안에 노출되어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종달새의 노래』는 섹슈얼리티의 측면에서 이성애 규범의 자의성을 넘어설 여지를 지니면서도, 마지막에 정형화된 이성애적 결합을 제시함으로써 인종뿐 아니라 섹슈얼리티에 대한 우생학의 자의적 규범을 완성하는 역할을 한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주인공 티어가 '순수한 노르딕' 이민자로서 소위 당대의 '우생학적 건강함'이라는 지배적 이념을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지, 그리고 '건강한' 이성애와 '건강하지 않은' 섹슈얼리티의 갈등 관계가 어떻게 재현되고 이 갈등이 시대의 요구에 맞추어 어떻게 봉합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3) 샤리스타니안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여성의 행복 진정으로 합법적인 행복이 결혼 적합성이나 다름없는 것이라는 1915년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캐더는 필경 그녀의 주인공에게 남편을 제공했을 것이다"(Cather probably provided her protagonist with a husband in order to appease the expectations of 1915, when a woman's happiness—indeed, her legitimacy—was equated with her marriageability)(xxiv). 티어의 결혼이 그 시대의 요구, 즉 여성의 행복을 결혼에서 찾으려는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이었다는 샤리스타니안의 이와 같은 지적은 우생학의 관점에서 볼 때도 타당하다.

4) "미래 없음"(no future)은 리 에델만(Lee Edelman)이 『미래 없음: 퀴어이론과 죽음 충동』(*No Future: Queer Theory and the Death Drive*)에서 퀴어에 대한 이성애의 불안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표현이다.

2. 우생학적 '건강함'과 '명백한 운명'(Manifest Destiny)'[5]

1) 우생학적 혈통

『종달새의 노래』는 가수로서 탁월한 재능을 지닌 스웨덴 혈통의 티어 크론보그가 오페라 가수로 성공하는 과정을 매우 세밀하게 다룬 작품이다. 오페라 가수로서의 성공담으로 요약될 수 있는 『종달새의 노래』는 무엇보다도 티어의 '타고난 재능'이 티어의 어머니와 외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북유럽 혈통을 기반으로 한다는 우생학적 전제에서 출발한다. 티어의 음악적 재능은 동시대 우생학 대회에서 매우 강조되는 자질 중 하나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스티븐 셀든(Steven Selden)에 따르면, 동시대 우생학 조직들이 지원하는 '우량가족 대회'에서 음악적 재능은 우생학적으로 뛰어난 "노르딕계"[6]의 자질에 속했다. "음악적 재능이 있는 집안"이

---

5) '명백한 운명'(Manifest Destiny) 개념은 『미국잡지와 민주당리뷰』(*United State Magazine and Democratic Review*)의 편집자이자 칼럼니스트였던 존 L. 오설리번(John L. O'Sullivan)이 1845년 텍사스 합병을 적극 지지하면서 쓴 「합병」("Annexation")이라는 글에서 처음 언급된다. "매년 늘어나는 수백만 명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해, 신께서 주신 대륙을 온통 뒤덮을 우리의 명백한 운명"("our manifest destiny to overspread the continent allotted by Providence for the free development of our yearly multiplying millions.)(2). 식민지 시대부터 줄곧 백인들이 보편적으로 품어오던 이 사고는 오설리번의 이 표현으로 적절하게 요약될 수 있었다. 그의 이 어구는 향후 미국인들이 '선택받은 사람들'(chosen people)로서 미 대륙에서 번영을 누릴 미래가 약속되어 있다는 낙관적 믿음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 된다.

6) 『위대한 인종의 종말』(*The Passing of the Great Race*)에서 메디슨 그랜트(Madison Grant)는 유럽의 인종을 '노르딕계'(the Nordic), '알프스계'(the Alpine), 그리고 '지중해계'(the Mediterranean)로 나누고, 노르딕계의 우월성을 두지수(두개골의 가로 세로 비율), 피부색, 머리색 등의 신체적 특징을 기반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는 당대의 북유럽과 서유럽을 기반으로 한 앵글로색슨계 백인 남성으로 구성된 지배 계급의 관점에서 동유럽과 남유

주로 가족 대회의 우승자로 선정된다(Selden 216). 따라서 음악적 재능이란 당대의 독자들에게 우생학적 건강함을 상기시키는 유력한 덕목이 된다. "신체적으로 강인"(physically strong)하고 "음악적으로 뛰어난"(musically intelligent)(176)[7] 티어의 특별한 재능은 그녀가 스웨덴 혈통이라는 점에서 그녀의 성공을 '미리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그녀의 혈통 문제는 작품 초반부터 분명하게 표현된다. 티어가 어린 시절 고열로 고생하던 날 밤, 크론보그 집안의 주치의인 닥터 아치(Dr. Archie)는 어린 티어의 몸 상태를 살펴보면서 우생학적 사고를 노출한다.

> 그는 티어를 들어 안고 탈의를 시키면서 이 작은 아이의 몸이 마치 꽃처럼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생각했다. 이 아이의 몸은 정말 깔끔하고 섬세하며, 너무나 부드럽고 우유처럼 하얗다. 티어의 머리와 비단 같은 피부는 분명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았음이 틀림없어. 이 아이는 스웨덴 혈통의 아이야, 그것도 아주 완벽하게. (13)

> As he lifted and undressed Thea, he thought to himself what a beautiful thing a little girl's body was,—like a flower. It was so neatly and delicately fashioned, so soft, and so milky white. Thea must have got her hair and her silky skin from her mother. She was a little Swede, thorough and thorough.

티어의 머리색과 피부색은 스웨덴 혈통의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것으로 묘사된다. 티어의 아버지인 피터 크론보그(Peter Kronborg)

럽 이민자들을 배제하려는 반-이민(Anti-immigration)의 정서를 함축한다. 특히 1890년에서 1910년대 급격히 불어난 동유럽 이민자들에 대한 반-이민의 정서는 그랜트의 우생학 논의를 인기 있는 담론으로 만드는 데 일조한다.

7) 앞으로 『종달새의 노래』 인용은 쪽수만 표기하기로 한다.

도 그녀의 "기질"(constitution)이 크론보그 부인에게서 "물려받은"(inherited) 것임을 강조한다(14). 게다가 크론보그 부인과 부인의 세 자매 모두 피아노 연주실력이 뛰어나며 노래를 잘 불렀다는 정보제시도 혈통의 중요성을 암시한다. 크론보그 부인의 아버지, 즉 티어의 외할아버지가 "미국으로 오기 전에 스웨덴 오케스트라에서 오보에 연주를 했다"는 점 역시 우생학의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하다(25). 스티븐 셀든(Steven Selden)의 관점에서 보면, 크론보그 가족은 우생학의 선전 도구인 〈건강 가족 대회〉의 우승자가 될 것임이 확실해 보인다.

티어의 친구 프레드는 그녀의 타고난 목소리가 특히 "하얀 피부의 인종에게서만 나타나는" 재능이라고 말한다(235). 심지어 시카고에서 노래에 조예가 있는 유태인 부부인 나탄마이어 부부(The Nathanmeyers)는 티어를 처음 본 순간 "그녀 자체로 감탄했고"(237) "이 아이의 팔과 어깨의 우윳빛 흰색"(238)에서 "위대한 가능성"(238)을 볼 수 있다고 표현한다. 티어의 타고난 음악적 재능이 철저히 혈통의 문제, 노르딕계의 우월한 자질로 제시되고 있다.

티어의 평생 친구인 닥터 아치는 어린 시절부터 그녀의 타고난 자질을 일깨워준다. 다음과 같이 그는 당대의 우생학적 관점에서 티어의 소명을 일깨운다.

> "그 안에 뭔가 있었어!" 닥터 아치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그녀의 두개골 모양을 살폈다. "티어, 네가 어렸을 때 난 늘 네 머리 모양에 대해 호기심이 있었단다. 대부분의 다른 아이들보다 넌 그 안에 뭔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았단다. (74)

> "Something in that!" Dr. Archie patted her head, and then felt the shape of her skull gently, with the tips of his fingers. "When you were little, Thea, I used always to be curious about the shape of your head. You seemed to have more inside it than most youngsters.

"두개골의 모양"을 살펴보는 일은 텍스트의 우생학적 시선을 반영한다. 왜냐하면 티어의 머리 모양과 티어가 지니는 "무언가" 특별한 것을 혈통의 문제와 연결하기 때문이다. 닥터 아치는 "오! 스웨덴 사람은 어디서든 뭐든 잘할 수 있다"라고 스웨덴 민족의 남다른 특징을 강조한다(75). 이에 대해 티어 역시 "맞아요. 예전엔 스웨덴 사람이란 게 창피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스웨덴 사람이 평범할지라도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좋겠죠"라고 스웨덴인임을 자랑스러워한다(76 강조는 원저자의 것). 닥터 아치의 인정을 통해 티어의 자긍심은 더욱더 단단해진다. 닥터 아치는 의사로서 티어의 우생학적 '건강함'을 확인시켜주는 권위자 역할을 한다.

2) 우생학과 '명백한 운명'

스웨덴 출신의 음악적 재능을 지닌 티어에 대한 묘사 이외에도, 그녀의 '우생학적 건강함'을 암시하는 네 가지 일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일화들은 특히 '가난', '질병', 그리고 '타 인종'이라는 비우생적 자질에 직면하는 티어의 태도 구현과 연관된다. 첫 번째는 가난한 이방인에 의해 문스톤에 전염병이 창궐한 사건이며, 둘째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티어가 기차 안에서 폐병에 걸린 '병든 소녀'를 만나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티어가 멕시코 사람들 사이에서 노래를 부르는 '멕시칸 무도회' 일화와 고대 북미 원주민들의 삶의 흔적을 유지하는 애리조나 팬터 계곡(Panther Canyon) 방문기는 '타 인종'과의 조우에서 티어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사건들이다. 이 네 가지 사건은 티어를 '가난한 이방인', '병든 소녀', 그리고 '타 인종'과 대립시킴으로써 그녀가 자신의 소명을 깨달아가는 과정에서 열등하다고 인지되는 자질들 혹은 존재들을 무시하거나 혹은 폭력적으로 '통합시키는' 모순을 보여주는 장면들이다. 티어를 가수로서 성공하게 만드는 그녀 자신의 '무언가'는 우생학

의 관점에서 건강한 자질이며, 우생학적으로 '건강한' 티어만이 '명백한 운명'에 따를 자격이 있는 것으로 재현된다. 우생학의 관점에서 볼때, '가난'이나 '병든 여성' 그리고 '타 인종' 같은 범주는 소거되거나 통합되는 운명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

첫째, 티어의 15세 생일 무렵 문스톤에 닥친 "소름끼치는 사건"(grim incident)을 보자(123). 이 사건은 가난한 이방인과 티어를 비교해 보여줌으로써 티어의 우월함을 암시하는 결과를 낳는다. 마을에 갑자기 장티푸스가 창궐하고, 이 전염병의 원인은 문스톤에 온 어느 떠돌이와 연관된다. 한쪽 팔엔 보따리를, 다른 쪽에 나무상자를 들고 "검은 머리로 뒤덮인 깡마르고 배고픈 얼굴"에 "가장 지저분하고 비천한 모습을 한 떠돌이"가 마을에 왔다(119). 그는 "심한 악취"를 풍기며, "12마리의 방울뱀"이 있는 상자를 갖고 있다(119). 마을 사람들 앞에서 그는 살아있는 뱀을 먹겠다고 말해 모두를 충격에 빠뜨리고, 결국 보안관에게 체포돼 24시간 구금된다. 후에 사람들은 마을을 떠났을 것이라 믿었던 그가 저수탑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저수탑 안에서 썩은 시신은 마을에 전염병을 일으킨다. 떠돌이는 자신을 가둔 문스톤 사람들을 향해 죽음으로 복수를 한 셈이다.

티어는 그 헐벗은 이방인을 도왔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닥터 아치에게 묻는다. 그러나 아치는 떠돌이에게 동정을 보이지 않는다.

> "끔찍한 사건은 일어나기 마련이란다, 티어야. 늘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테지. 그러나 낙오자들은 한쪽으로 걷어 치워지고 잊혀지는 법이야. 그들은 세상에 오랜 흉터도 남기지 않을 것이고, 미래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란다. 꾸준히 지속되는 것이 좋은 것이지. 앞서서 무언가를 해내는 사람들, 그들이 진짜 중요한 거야." … "그 떠돌이는 잊어버리렴, 티어야. 세상은 정말 크고, 난 네가 세상에 나가 모든 걸 봤으면 한단다. 언젠가 시카고에 가서 너의 훌륭한 목소리로 뭔가를 해내게 될 거야. 분명 넌 최고의 음악가가 돼서, 우리가 널 자랑스럽

게 여기도록 할 테지. (123)

"Ugly accidents happen, Thea; always have and always will. But the failures are swept back into the pile and forgotten. they don't have any lasting scar in the world, and they don't affect the future. The things that last are the good things. The people who forge ahead and do something, they really count," … "Forget the tramp, Thea. This is a great big world, and I want you to get about and see it all. You're going to Chicago some days, and do something with that fine voice of yours. You're going to be a number one musician and make us proud of you.

장티푸스라는 전염병의 원인으로서 "떠돌이"는 문스톤 마을에 위협적인 이방인이다. "검은 머리"를 하고 "심한 악취"를 풍기며 "배고픈" 얼굴을 한 채 마을을 떠돌아다니는 부랑아로 표현되는 그는 '사회의 부적격자'(the socially unfit)로서 '가난, 이방인, 질병'을 함축한다. 가난한 이방인으로서 그는 우생학의 관점에서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공교롭게도 캐더가 활동하던 동시대 캐더의 저서를 냈던 출판사 호튼 미플린에서 나온 토마스 베일리 알드리치(Thomas Bailey Aldrich)의 시집 『무방비의 문』(*Unguarded Gates*)은 '질병과 가난, 그리고 기형'을 '이방인'에 연결하는 상징을 많이 담고 있었다. 오랫동안 『아틀란틱 먼슬리』(*Atlantic Monthly*)의 편집자 일을 했던 알드리치는 캐더 시대의 문학과 잡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다. '이방인'을 "야만적인 잡동사니 무리들"(a wild motley throng)에 비유하고, 악의 소굴이 되어가는 미국에 대해 경고한 알드리치의 시집이 당대에 큰 인기를 끌었다는 사실은 캐더 시대에 문학에 미친 우생학의 전반적 영향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전염병과 '이방인'을 묶는 비유를 주목할 만하며(Dywer

109), 이 점에서 캐더의 떠돌이 일화는『무방비의 문』과 공명하는 측면이 있다.

어린 티어는 "세상에 아무런 흉터도 남기지 않을 사람"과 "앞서서 무언가를 하는 사람" 사이의 위계적 관계를 닥터 아치로부터 듣고 자신과 떠돌이 사이의 메울 수 없는 틈을 가정하게 된다. 티어는 "훌륭한 목소리"를 갖고 "앞서서 무언가를 하는 사람"이 되지만, 떠돌이는 미국의 미래를 위해 제거되어야 하는 인종적, 계급적 타자가 된다. 이방인 타자가 '지양' 혹은 제거됨으로써 티어의 우월성이 더욱 고양된다.

닥터 아치와 대화를 나눈 티어는 "그와 여태껏 나눈 가장 어른스러운 대화"였다고 생각하면서, "행복해지고, 우쭐해지고, 흥분된 상태로 그의 사무실을 나왔다"(123). 우쭐해진 티어는 달빛 아래를 한참 동안 달리면서 별을 올려다보기도 하고, 지금까지 봐왔던 친숙한 나무와 사람들이 갑자기 사랑스러워짐을 느끼기도 한다. 그리고 그녀는 덴버 같은 대도시 너머의 "미지의 세계"를 동경하게 된다. 이 순간 "그녀는 영원히 이곳을 떠나가고자 하는 욕망과 영원히 제자리에 남고자 하는 욕망 사이에서 … 더 이상 허비할 시간이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123). 흥분된 마음으로 침대에 누운 티어에게 드는 생각을 저자는 "인생은 외부에서가 아니라 내부로부터 촉진되는 것"이라는 표현으로 압축한다(124).

결국 티어는 떠돌이를 향한 동정의 감정을 묻어버리고 자기만족에 빠지며 낭만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젖어 든다. "티어 크론보그는 늙은 듀마가 낭만주의자들에게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서 자신에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의 열정과 네 개의 벽이었다고 말한 의미를 알게 되었다". 떠돌이에 대한 동정에서 시작된 티어의 생각은 이제 완전히 바뀌어 "낭만주의자들"에겐 내부로부터 끌어오르는 열정 하나면 충분하다는 단언으로 귀결된다(124). 주목할 점은 내부로부터 생긴 '열정' 하나로 인해, 외부의 타자가 사라지는

결론에 티어가 이르게 되었다는 점이다. 인종적 계급적 타자를 접하는 순간에 펼쳐지는 티어의 자기중심적 사고는 "훌륭한 목소리", 즉 음악적 재능의 '건강함'이라는 무기를 지닌 '스웨덴인'이 성공할 수 있다는 우생학적 사고와 분리될 수 없게 된다. 자신의 혈통과 재능을 바탕으로 한 티어의 자기중심적 사고는 '더 나은 인종 만들기'(building a better race)라는 목표를 위해 가난, 질병, 장애, 타 인종 등은 사라져야 한다는 우생학의 관점에서 잘 설명된다.

우생학적 관점을 드러내는 두 번째 일화를 보자. 가난한 이방인인 "떠돌이"와 건강한 목소리를 지닌 티어의 대립은 암울한 미래에 있는 "병든 소녀"(the sick girl)와 티어의 대조에서 반복, 강화된다. 티어는 시카고에서 노래 수업을 받고 콜로라도로 돌아가는 기차에서 열아홉 살의 병든 여자와 그녀의 어머니를 만난다. 폐병에 걸린 소녀의 기침이 심해서 티어는 그녀와 같은 칸에 있고 싶지 않았지만, 그녀의 요청 때문에 함께 있게 된다. 그녀는 "거기 앉으세요. 전 남자분이 앞에 앉지 않았으면 좋겠어요"라고 티어에게 부탁한다(186). 마지못해 그녀와 함께 있게 된 티어는 밤늦도록 기침소리를 들어야 했다. 그 밤에 티어는 시카고 생활을 돌이켜 보았고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었음을 깨닫는다. 예를 들어 "다른 어떤 면보다도, 그녀의 목소리는 어떤 확신, 완벽하다는 느낌, 내적인 건강함과 연관되었다"(186). 이렇게 티어의 건강함은 병든 소녀의 질병과 대조를 이룬다.

병든 소녀 옆에서 티어는 자신의 '건강함'에 관해 생각한다. 언젠가 하사니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티어는 자신의 목소리에 관해서 "뭔가 특별한 것이 늘 있다"는 생각을 해왔다(187). 그런데 지금 병든 소녀와 함께 있는 기차 안에서 티어는 "뭔가 특별한 것"을 다시 생각한다. 예를 들면 "그것이 지금 그녀에게 다가오고 있고, 그녀는 그것을 맞이하러 가고 있다. 그 만남이 지금 그녀를 확실히 기다리고 있는데, 그녀 뒤에 있는 이 가여운 소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분명 땅에 파인 구멍이다"(187). 티어는 자신의 목소리에 대한 자신감으로 무장되어 있지만, 반대로 "병든 소녀"의 미래는 너무나 암울해 보인다. 그녀에게는 "구멍"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187).

게다가 신체적으로 건강한 티어는 그 소녀의 나약함을 비웃고, 자신의 강인함에 안도하며 자신의 미래에 대한 열망과 자만심을 품는다.

> 오늘 밤 그리고 자신이 미래의 자신을 만날 그 곳 사이에 이런 어두운 구멍이 자기 앞에 입을 벌리고 있다고 생각해보라 … 티어는 가슴에 손을 얹고 얼마나 따스한지 느꼈다. 그리고 거기서 충만하고 강한 맥박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부끄럽긴 하지만 미소를 지었다. 나약함에 대한 강인함의 자연스런 경멸감으로, 야만인을 무자비하게 만드는 신체적 안도감으로 미소지었다. …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열망과 함께 … 티어는 일종의 견고한 자만심과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결의를 갖게 되었다. (188)

> Suppose there were such a dark hole open for her, between to-night and that place where she was to meet herself? … She put her hand on her breast and felt how warm it was; and within it there was a full, powerful pulsation. She smiled—though she was ashamed of it—with the natural contempt of strength for weakness, with the sense of physical security which makes the savage merciless. … Along with the yearning that came from some deep part of her, … Thea had a hard kind of cockiness, and determination to get ahead.

티어는 "신체적 안도감", "강인함", "열망", 그리고 "견고한 자만심"을 가지고 병든 소녀와 자신이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며 잠이 든다. 다음 날 아침 식당 칸으로 간 티어는 병든 소녀와 자신의 차이를 강조하려는 듯이 소녀를 위해 웨이터에게 커피 한 잔과 장

미꽃 한 송이를 부탁하고 돈을 낸다. 소녀에게 줄 커피와 꽃값을 내는 그녀의 행동은 병든 소녀에 대한 공감의 발로이기보다는 오히려 아픈 여자와 자신을 차별화하고 싶은 이기적인 "자만심"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멕시칸 무도회" 일화는 시카고에서 노래 수업을 받고 고향인 콜로라도 문스톤에 돌아왔을 때 티어가 조니와 함께 멕시칸 타운의 댄스홀을 방문한 사건과 연관된다. 댄스홀 장면에서 주목할 점은 티어의 "뛰어남"이 멕시코 사람들과의 대조를 통해 드러나는 점이다. 표면상 멕시칸 타운은 티어의 가족이 사는 곳의 엄격한 분위기와는 달리, 가족들 모두가 자유롭게 춤을 추며 즐기는 분위기에 있다. 티어는 기름때로 얼룩진 작업복을 입은 그들의 모습에서 낯설음을 느끼지만 음악을 즐기는 그들의 모습에서는 자연스럽게 섞여드는 이중적 감정을 느낀다. 예를 들면 티어는 "오늘 밤은 그 어떤 구속도 없었다. 그저 그들의 몸동작, 인사하는 태도, 저급한 대화, 미소들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룬다"고 느낀다(198). 티어는 멕시칸 무도회에서 음악과 춤에 대한 멕시코 사람들의 애정을 느끼고 그들의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끽한다. 멕시코 사람들도 그녀에게 호의적이다.

특히 멕시코 남자애들은 티어가 "눈부시도록 아름답다"고 찬양한다(198). 그런데 그녀에 대한 찬양 장면에서는 그녀의 인종적 특성도 함께 제시된다. 예를 들면 "그들은 한 번도 스칸디나비아 여자를 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그녀의 머리와 하얀 피부는 그들을 매혹시켰다"는 표현은 멕시코 소년들이 하얀 피부의 백인 소녀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저자의 목소리가 무의식적으로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198). 뿐만 아니라 음악을 즐기는 멕시코 사람들 앞에서 티어가 노래를 부르자 모두가 그녀의 노래에 집중한다. 타인종 앞에서 훌륭한 공연을 하는 티어의 모습이 제시되는 반면에 조니를 비롯한 멕시코 인들의 모습은 매우 대조적이다. 특히 조니

의 "목소리는 가늘고, 불안하고, 쉰 중간음"이다. 훌륭하게 노래를 한 티어와 달리 멕시코 여인들은 "너무나 나태하고 … 앉아서 머리빗질만 한다"(201).

멕시코 무도회 방문의 효과는 티어의 결단을 보여주는 부분에서 더욱 공고해진다. 티어는 무도회를 다녀온 후 언니인 애나(Anna)로부터 멕시코 사람들과 어울린 일에 대해 힐난조의 말을 듣는다. 애나는 조니를 비롯한 멕시코 사람들과 어울리는 티어를 못마땅하게 여긴다. 그리고 티어는 가족들로부터 이상한 "적대감"을 느낀다(205). 그녀는 그날 밤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생각한다. 티어는 "자신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그녀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친구였다"라고 여긴다(205). 그녀를 바라보는 그녀 안의 '그 무엇'(the thing), 즉 티어 자신의 "욕망"(desire)이나 "야망"(ambition)에 고무되어 정작 애나의 발언에서 문제가 되는 멕시코 사람들에 대한 편견은 티어의 관심에서 '사라지게' 된다(211). 티어는 애나가 보여준 멕시코인에 대한 인종적 편견이 부당하다고 인식했지만, 거기에 반발하는 어떤 언급이나 행동도 없이 자신의 욕망과 야망에만 몰두한다. 자기 안에 있는 '그것'(the thing)에 대한 관심이 예술가로서의 성장에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작가 자신의 인식이 결국 다른 인종에 대한 티어의 애초의 관심을 사라지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멕시칸 무도회 일화는 예술가로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티어의 재능과 열정을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즉 무도회 방문 사건은 티어가 결국 가수로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다는 사실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우생학적이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있는 티어에 대한 재현은 '명백한 운명'이라는 미국인들의 오래된 이념과 연관된다. 유전이나 혈통이 주요 작동 원리인 우생학의 개념은 사실상 미국적 문맥에서 '명백한 운명'이라는 미국인들의 오래된 낙관적 이상과 통한다. 성공의

요인을 혈통의 문제로 보는 우생학은 "우리 국가의 위대한 미래는 예정되어 있다"고 보는 '명백한 운명' 개념과 다르지 않다(O'Sullivan, "The Great" 426). 티어의 경우처럼 동시대 성공한 예술가가 되기 위해서는 '노르딕계' 스웨덴 사람이라는 혈통이 전제되어야 했다. 마찬가지로 19세기 초 오설리반에 따르면, 미국의 위대한 미래를 위해 선택된 민족도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우생학과 미국인들이 지니는 '명백한 운명'의 이념은 다른 인종, 종교, 문화에 대한 미국인들의 인종적 우월주의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저자의 우생학적 태도와 연관된 마지막 일화인 티어의 "팬터 협곡" 방문기는 '사라지는 인종'(vanishing race)에 관한 이야기이다. 티어가 반주를 하는 일에 지쳐 있을 때 프레드 오텐버그(Frederick Ottenburg)는 그의 아버지 소유의 농장이 있는 애리조나로 갈 것을 권유한다. 농장 근처에는 나바호 원주민 보호구역이 있고, 팬터 계곡이라는 "암굴거주자 유적지"가 있다(247). 티어는 그 곳에서 이른바 "고대 사람들"(the ancient people)[8]과 조우한다.[9]

팬터 협곡으로 간 티어는 그곳에서 일명 '돌방'(a rock room)에 들어가 햇빛을 누리고 몇 시간을 누워 있곤 한다. 고대인들이 지은 협곡 내부에는 오래전 그들이 지은 집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곳에서 티어는 "모래와 태양이 주는 화려한 고독"을 즐긴다(252).

---

8) 캐더는 콜럼버스 이전의 미국 대륙에 살았던 북미 원주민을 다루기 위해 『종달새의 노래』 4장에 "고대 사람들"(the Ancient People)이라는 제목을 단다.

9) 캐롤라인 M. 워이댓(Caroline M. Woidat)에 따르면, 1900년대 초반 동부 사람들에게 미국의 남서부(the Southwest) 지역에 있는 북미 원주민의 유적을 여행하는 관광, 소위 "인디언 우회"(Indian-detour)라고 불리는 관광이 인기가 있었다(35). 캐더 역시 '메이사 베르디'(Mesa Verdi)를 다녀온 후에 그곳의 방문을 권유하는 글을 『덴버 타임즈』(*Denver Times*)에 기고하기도 했다(Woidat 29). 캐더 자신의 인디언 유적 방문과 직접 연관된다는 점에서, 주인공 티어의 "팬터 협곡" 여행의 의미는 당대 북미 원주민에 대한 캐더의 사고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녀는 태양빛을 쬐며 누워 있을 때 자연과 완벽히 하나가 됨을 느낀다.

> 그녀는 그저 태양의 열을 받아내는 하나의 그릇이 되거나, 문 바깥의 뜨거운 돌 위에서 뛰어다니는 밝은 색깔의 도마뱀 같은 하나의 색이 되거나, 혹은 매미처럼 끝도 없이 반복하는 하나의 소리가 될 수도 있었다. (255)

> She could become a mere receptacle for heat, or become a color, like the bright lizards that darted about on the hot stones outside her door, or she could become a continuous repetition of sound, like the cicadas.

"그릇"과 "색"과 "소리" 등은 오래전 이곳에 살았던 사람들과 티어를 연결시켜 준다. 자연의 일부가 되는 경험을 하면서 티어는 "고대 사람들의 요리 연기의 흔적, 바위 지붕에서 떼어낸 탄소 조각들"을 손에 들고 "그들이 바로 옆에 있었어!"라고 외치기도 한다(256). 티어는 그들이 걸었던 길을 걸으며, 그들이 느꼈던 것을 똑같이 느껴본다. 또한 티어는 고대 사람들이 물을 받으려고 만든 "항아리"를 보며 그것들이 마치 공기를 담아내는 자신의 "목"(throat)과 같다고 생각한다(258). 그리고 그녀는 그들의 흔적이기도 한 "사금파리"를 보면서, "이 사금파리는 인간 노력의 긴 고리에 우리를 연결하는 사슬과도 같은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259). 자연과 고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흔적을 보면서 일련의 성찰 후 "생각이 정리되고, 분명해지고, 뚜렷해졌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합치되고 강해진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그녀는 "모든 것이 갑자기 행동을 위한 욕망의 형식을 취하는 것 같다"며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독일로 유학을 가야겠다고 결심한다(260-61).

티어가 팬터 계곡에서 발견한 것은 북미 원주민 조상의 삶이다. 다른 인종과의 조우에서 티어는 그들과 자신을 완전히 통합시킨다. 심지어 티어는 자연과 그리고 고대 사람들과의 통합을 깨달으며, 비로소 자신이 완전해진 느낌에 사로잡힌다. 주목할 점은 이런 통합의 과정이 다른 인종의 '사라짐'을 전제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팬터 협곡을 떠나는 프레드와 티어가 플랫폼 뒤에 앉아 멀어지는 경치를 바라보는 장면에서 다음과 같은 서술자의 목소리가 등장한다. 이 여행에 "완전히 만족해하는" 프레드와 티어는 "화려하고, 텅 빈 땅이 휙 지나가 버리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이제 사막과 죽은 인종, 변화나 관념이 없는 세상에 싫증이 났다"(278). 지금까지는 티어가 자연과 그 자연 속에 있던 고대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그들의 역사가 그녀에게로 이어지는 듯 보였지만, 북미 원주민 조상을 "변화나 관념이 없는 죽은 인종"에 비유하는 것은 북미 원주민에 대한 당대의 통념, 즉 "사라지는" 인종으로서 인디언을 바라보는 백인의 수사를 반영한다. 백인의 서부 팽창과 정착을 위해서 북미 원주민은 '사라져야 하는' 인종이 되기 때문에 '사라진' 혹은 '죽은' 인종이라는 표현은 당대 백인의 수사에서 빠지지 않는 경구가 되었다.[10]

---

10) 19세기 미국인들 사이에 성행한 "유일하게 좋은 인디언은 죽은 인디언이다"(The only good Indian is a dead Indian)라는 통념에는 백인들이 인디언을 '사라지는 인종'으로 치부함으로써 자신들과 거리두기를 하는 양상 그리고 그러한 거리두기가 확보되었을 때에만 인디언이 선하고 숭고한 대상으로 '낭만화'(Romanticizing)됨을 잘 보여준다. 벤자민 T. 스펜서(Benjamin T. Spencer)는 인디언의 "기원, 발전, 부패, 그리고 소멸에 대한 초상을 통해서, 저항하기 힘든 광대함, 신비, 그리고 숭고함이 생겨날 것이다"(through a portrayal of its origin, progress, decay, and dissolution, there would be a compelling grandeur, mystery, and sublimity)라고 언급하면서 인디언의 "소멸"과 "숭고함"의 관계를 지적한다(131). 인디언을 고대인처럼 사라지는 인종으로 보며 노스탤지어, 회한의 감정을 갖거나 더 나아가 인디언을 문명의 타락에 오염되지 않은 미개하지만 '고상한'(noble) 사람들로 바라보는 시선은 얼핏 보면 이들에 대한 백인들의 긍정

당대 여행서사의 특징을 분석한 캐롤라인 M. 워이댓(Carloine M. Woidat)의 글은 고대 사람들에 대한 티어의 이와 같은 모순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워이댓에 따르면, 『종달새의 노래』는 동시대 여행서사가 보여주는 모순을 그대로 반영한다. 당대 미국인들은 남서부의 인디언 유적에 대해 매우 모호한 욕망을 가졌다. 미국인들은 유럽에 비해 역사가 짧은 것에 대한 열등의식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1888년 메이사 베르디가 발견되고 난 후, 남서부에 있는 많은 유적지를 관찰한 미국인들은 고대인들이 이룬 직조기술이나 관개시설 등의 발전에 놀라워했다. 아름다운 경치뿐만 아니라 그들의 뛰어난 기술은 존경할 만했다. 유럽 문명에 대한 열등감을 메우기 위해 미국인들은 오래전, 즉 콜럼버스 이전의 북미 원주민들을 자신들의 역사로 통합시킨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과학적 발견도 그들의 논리를 합리화하는 근거로 사용된다. 예를 들면 1910년에 발표된 고고학 연구에 따르면, 백인들은 "현대의 호피족"이 그들의 조상보다 훨씬 열등하다"는 발견에서 당대의 인디언들보다 고대 인디언들이 훨씬 더 우월했다고 판단한다(Woidat 31). 미국인들은 오래전 북미 원주민들의 발전된 문명이 현대의 호피족이 아닌 백인의 짧은 역사와 문명을 연장해 준다고 믿는다. 그리고 그들은 사라진 인종을 그렇게 낭만화한다.

북미 원주민 문화와 역사를 자신들의 문화와 역사로 통합시키는 것은 위에서 제시된 티어의 개인적 통합과정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러나 워이댓이 한 가지 더 지적한 것은 사라진 인종에 대한 낭

적이고 우호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인디언을 '사라지는 인종'으로 간주하는 것을 통해 미국의 백인들은 이중적인 이득을 얻는다. 즉, 한편으로는 인디언이 백인에게 자리를 내어줄 운명에 있고 백인은 국가의 진보라는 미래를 위해 선택된 사람이 될 '명백한 운명'이라는 인종적 우월성이 확보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숭고하게 '사라지는 인종'의 역사를 미국 백인들의 역사로 통합시킴으로써 인디언의 역사를 지우고 미국의 역사를 좀 더 확장시킨다.

만화가 동시에 당대 북미 원주민들의 현실에 대해서 눈 감는 모순을 드러낸다는 점이다. 즉 당대 미국은 백인과 인디언들이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었기 때문이다. 이 시대에 인기 있었던 서부 "인디언 우회"(Indian detour)로 불리는 '인디언 유적지 관광'은 카우보이나 인디언의 복장을 하고 그들의 문화를 즐기는 여행 패키지로 구성되었다. 이런 관광은 원주민의 과거 모습을 동경하는 것으로서 동시대의 인디언들까지 과거의 모습으로 박제화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워이댓에 따르면, 캐더의 친구이자 현실 참여적인 작가였던 엘리자베스 서전트(Elizabeth Sergeant)는 캐더의 이런 낭만화를 "도피"적인 것으로 비판했다(39). 서전트의 주장은 캐더의 '남서부'가 '현재'가 아닌 '과거'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캐더는 1932년 『종달새의 노래』의 서문을 다시 쓰면서 『종달새의 노래』를 "소녀의 도피"(a girl's escape)에 관한 이야기라고 요약한다. 여기서 도피는 예술가로서 성장하기 위해 가족과 사회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멕시칸 무도회와 팬터 협곡에서 다른 인종을 조우하는 과정을 보면, 이 도피는 분명 현실에서 일어나는 타 인종과의 갈등의 문제를 회피/우회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멕시코인과 북미 원주민은 티어와 캐더의 서사에서 '사라지는' 인종이 되고, 그들은 티어의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티어의 '우생학적 건강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꺼이 통합되고 사라진다. 이런 점에서 그녀의 성공은 '선택된 인종'의 예정된 승리와, 부적격한 인종의 예정된 패퇴를 상징하는 '명백한 운명'의 서사로 읽힌다.

3. '목소리'와 섹슈얼리티

1) 이성애 규범을 위반하는 '캐더식 우정'

『종달새의 노래』에서 그려지는 티어의 우생학적 건강함은 미국인의 '명백한 운명'과 함께 동시대의 우생학적 인종주의를 반영한다. 그리고 이 점은 이 작품이 동시대 백인 정착민 독자들에게 호소력을 얻게 된 이유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종달새의 노래』는 젠더 규범에 충실한 '이성애적 결혼관계'(heterosexual marital relationship)와 '목소리'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우정'(friendship) 혹은 '혼외관계'(extra-marital relationship)를 서로 대립시킴으로써, 동시대의 규범적 섹슈얼리티를 위반하는 면모를 보여준다. 티어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형성된 관계들에서 촉발된 '위반의 섹슈얼리티'는 티어의 우생학적 '건강함'과 함께 작품의 한 축으로서 젠더와 인종, 젠더와 섹슈얼리티의 긴장관계를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둘 사이의 긴장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동시대 젠더 규범과 이러한 젠더규범에 대한 캐더 자신의 전기적 사실, 그리고 젠더규범과 규범적 섹슈얼리티의 관계를 살펴보는 일이 필요해진다.

조지 챈시(George Chancey)는 『왜 결혼인가?』(*Why Marriage?*)에서 캐더 시대의 사회적 쟁점 중 하나로서 "규제적 젠더 역할에 대한 여성들의 도전"(women's challenge of restrictive gender roles)을 지적한다(16). 캐더는 어린 시절에 자신의 이름을 '윌리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를 원했으며, 대학 시절에도 짧은 머리에 바지를 즐겨 입는 복장 도착의 형태로 젠더 위반을 즐겼다. 잡지 편집인으로서 공식적인 자리에 나서기 전까지만 해도 캐더는 남자 옷을 즐긴다.[11] 복장 도착뿐만 아니라 캐더의 삶에서 여성들과의 관

11) '복장 도착'으로 드러나는 캐더의 젠더 위반은 『오 개척자여!』와 『종달새

계는 젠더와 섹슈얼리티의 문제에서 주목할 만하다. 제임스 우드레스(James Woodress)와 샤론 오브라이언 (Sharon O'Brien)등 캐더연구가들은 캐더가 평생 맺은 여성들과의 관계와 캐더의 섹슈얼리티 문제에 주목한다. 캐더 연구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인물은 『종달새의 노래』를 포함한 '대평원 삼부작'을 출판할 무렵 캐더의 글쓰기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진 이사벨 맥클렁(Isabel McClung)이다. 필라델피아의 저명한 집안 딸인 맥클렁은 캐더가 소설을 처음 쓰기 시작할 무렵 맥클렁 저택의 한 공간에서 집필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후에도 맥클렁은 유럽여행에 캐더를 초대하는 등, 캐더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어린 시절의 캐더는 '이야기꾼'이기도 했던 이민자 여성들과 끈끈한 관계를 가졌다면, 학창시절을 비롯한 이후의 삶에서 캐더는 맥클렁을 비롯한 여성들과의 강한 유대 관계를 맺는다. 그녀에게 여성들과의 우정 혹은 사랑은 성적으로 보이든 그렇지 않든 '유쾌하고' 즐거운 관계로 유지된다고 볼 수 있다.

동성 간의 우정과 사랑이 유쾌한 정서와 연결되는 점은 캐롤 스미스-로젠버그(Caroll Smith-Rosenburg)의 연구에 특히 잘 나타나 있다. 스미스-로젠버그의 19세기 역사 연구는 '여성과 남성의 결합'(the union of a man and a woman)으로서 이성애적 결합이 '부정적' 혹은 '불쾌한' 관계로 받아들여지고, 동성끼리의 우정이 '유쾌한' 관계로 그려지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스미스-로젠버그의 주장에 따르면("Female World" 9), "미국 사회는 대체로 가족 내

의 노래』의 여주인공을 묘사할 때도 반영된다. 캐더의 젠더 위반에 대해서, 그녀의 선구자적 젠더 개념을 지적하는 앵거스 플레처(Angus Fletcher)의 글은 흥미롭다. 플레처에 따르면, 캐더는 보수적으로 변질된 "조야한 다윈주의"(vulgar Darwinism)와 달리, 애초의 다윈이 주장한 젠더 그리고 성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바뀌는"(in a constant state of context-dependent flux) 자질이라고 보는 다윈의 설명을 따른다고 본다(119).

에서 그리고 전반적으로 사회 안에서의 엄밀한 젠더 역할 구분으로 인해 여성과 남성의 정서적 분리라는 결과에 이르는 특징을 갖는다." 남편과 아내의 관심 영역과 활동 장소가 철저히 분리되어 있어서 결혼 관계는 "형식적이고 딱딱한" 반면, 관심과 활동 장소를 공유하는 동성끼리의 관계는 애정이 넘치고 유쾌하게 된다. 스미스-로젠버그는 19세기에 레즈비언 관계가 오히려 자연스럽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런 분위기 때문이라고 본다. 엄밀히 구별되는 젠더 역할에 충실하면 할수록 아이러니컬하게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더욱더 정서적으로 소원해진다.

『종달새의 노래』에서 특히 부정적으로 다루어지는 '결혼'은 세 부부의 예를 통해 분명히 드러난다. 아치 부부, 하사니 부부, 오텐버그 부부의 '이성애 결혼'은 '열정이 없고 불편한' 정서와 연루되는 관계로 그려진다. 닥터 아치는 티어의 어른 친구로서 그녀를 정신적·재정적으로 돕는 후원자이다. 문스톤에서 그는 관대하고 지적인 사람으로 알려지지만, 결혼 문제에 있어서는 매우 냉담한 이중적 삶을 살고 있다. 문스톤 사람들은 "부인에 대한 닥터 아치의 정중함이나 유쾌한 대화방식"에 대해 의심하지 않는다(78). 그러나 그는 부인에 대해서 "무정하고, 무례하며, 곱슬머리인데다 … 지금은 지루하고 메마른 여인"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부인에 대해서 냉정하다(76). 닥터 아치는 집에서는 찾을 수 없는 편안함과 즐거움을 찾으려고 덴버로 자주 여행을 간다. 그는 이혼에 대해서 "천박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겐 자신의 불행한 결혼 생활을 감춘다(77). 한편 아치 부인은 남편에 대해서 오로지 집안일을 부과하는 성가신 사람으로만 여긴다. 그녀는 남편이 원하는 아이를 갖지 않기 위해 언제나 극도의 긴장 상태에 있다. 그녀는 오로지 문스톤 사람들 사이에 떠도는 이야기들이나, 집안 내부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이들의 관계는 스미스-로젠버그의 주장처럼, 사실상 엄격한 젠더

의 경계 안에서 이루어진다. 닥터 아치는 늘 자신의 서재와 진료실에만 머무른다면, 아치 부인은 몇 시간이고 동네 모자 가게에만 앉아 있다. 아치가 서재에서 책읽기에 열중할 때, 아치 부인은 모자 가게에 앉아 동네 가십을 떠드는 일에 빠져 있다. 즉 그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일반적으로 남성, 여성에게 부과된 젠더 역할에 충실한 셈이다. 그들 사이에는 공통된 공간이나 관심이 없기 때문에 공통된 '즐거움'이 없다.

하사니 부부의 결혼 관계 역시 아치 부부와 마찬가지로 서로의 영역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함으로써 서로의 관계는 더욱 더 소원해지는 양상을 보인다. 시카고에서 티어에게 피아노를 가르친 하사니에게는 우아하고 지적인 부인이 있다. 그녀는 주부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인물로서 빠듯한 살림살이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보잘것없이 추레한 기분"이 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157). 부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사니는 결혼 생활을 "지겹고 힘든 노동"으로 여기며(184), 하사니 부인은 남편의 이런 생각을 알고 상처받는다. 하사니 부부 역시 아치 부부처럼 자신들의 관심이나 활동 영역에서 서로에게 소외되어 있다. 하사니는 자신의 음악에 몰두하지만, 하사니 부인은 집안을 우아하고 깔끔하게 유지하는 데 전념한다. 겉으로는 열정적인 피아니스트와 가정적인 주부의 완벽한 결합으로 보이지만, 정작 하사니는 "화가 나 있고 상처 입었으며", 하사니 부인 역시 남편으로 인해 "상처 입은" 채로 그들의 결혼 생활이 유지된다(184).

크리스토퍼 닐론(Christopher Nealon)과 스콧 헤링(Scott Herring)은 각각 캐더 작품의 우정 재현에 대해 "정서 계보"(affect-genealogy)와 "제3의 연대"(the third alliance)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닐론과 헤링은 캐더의 작품에서 이성애적 결혼관계가 아닌, 동성적 우정에 특별한 정동이 실리는 것을 발견한다. 특히 닐론은 캐더의 우정을 설명하기 위해 "정동 계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다음과 같

이 언급한다.

> 캐더의 주인공들은 가족과 국가의 압력에 대항하여 또 다른 종류의 국가와 가족에 대한 꿈, 서로가 서로를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감정의 유대로 묶이는 느낌을 주는 정서 계보 추구를 달성한다. (10)

> Cather's protagonists, against the pressures of both family and nation, find fulfillment in pursuing the dream of another kind of nation and family, an affect-genealogy whose members cannot see one another but feel nonetheless the uniting bond of their emotion.

닐론에 따르면, 캐더의 주인공들은 서로의 감정으로 하나가 되는 "정서 계보"를 형성한다. 감정의 유대로서의 우정은 가족과 국가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한다. 닐론은 캐더가 '결혼'을 거부함으로써 "가족이 아닌 감정이야말로 연대의 토대가 되는 또 하나의 미국"을 묘사한다고 주장한다(11). 닐론이 캐더가 그리는 우정을 "정서 계보"의 관계로 보았다면, 헤링은 캐더 주인공들의 우정을 "제3의 연대"로 본다. 헤링의 "제3의 연대"는 이성애에 대한 대안적 용어로서, 캐더의 주인공들이 '이성애 결혼'이 아닌 '동성적 관계'(homoerotic relationship)를 통해 "미국의 성적 이분법의 역사를 퀴어화하는" 시도를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Herring 70). 닐론과 헤링은 특히 캐더의 『교수의 집』(*The Professor's House*)과 『우리 중의 하나』(*One of Ours*) 속 남성 주인공들의 동성애적 관계에 주목하면서 "정서 계보"와 "제3의 연대"를 부각시킨다.

닐론과 헤링의 주장은 『종달새의 노래』의 중심적 플롯인 티어와 남자 인물들 사이의 우정을 설명하는 데도 유용하다. 왜냐하면 닐론과 헤링의 "정서 계보"와 "제3의 연대"는 '동성애' 자체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억압적 경계를 넘어서려 하는 인물들의 '욕망'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즉 규범적인 남녀 관계로서 이성애적

결혼관계를 위반하는 측면이 티어와 그 친구들 사이에 있고, 이 점이 그들의 우정을 위반의 섹슈얼리티로 읽을 수 있는 이유이다. 그녀의 우정은 '이성애적 결합'에 행복해하지 않는 인물들, 소위 "그녀와 같은 부류의 사람"(her kind) 사이에서 형성된다(203). "그녀와 같은 부류의 사람"은 티어의 아버지 피터 크론보그가 티어를 두고 사용한 표현처럼 "결혼 지향적인 사람"(marrying kind)이 '아닌' 이들이다(191). 예컨대 티어와 닥터 아치 그리고 오텐버그 사이에는 음식과 음악을 중심으로 "정서"의 유대가 생기며, 시카고에서의 음악 수업에서 티어와 하사니 사이에서도 비슷한 교감 혹은 '정서'의 흐름이 드러난다. 캐더의 표현대로, 티어와 그의 친구들, 소위 그녀와 "그녀와 같은 부류의 사람" 사이에 생기는 '캐더식 우정'(Catherean friendship)은 바로 닐론의 "정서-계보"이자 헤링의 "제3의 연대"와 같다고 볼 수 있다. "캐더식 우정"은 헤링이 분석한 남자들 사이의 동성적 관계만이 아니라 『종달새의 노래』의 티어와 친구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도 유용하다.

2) '캐더식 우정'으로 본 '위반의 섹슈얼리티'

그렇다면 티어와 티어 주변의 남자들 사이의 우정은 어떤 의미에서 '위반의 섹슈얼리티'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종달새의 노래』에서 '위반의 섹슈얼리티'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 의미에서 가능하다. 하나는 티어 자신의 젠더 위반의 측면과 그로 인해 티어와 친구들 사이의 엄격한 젠더 구분이 무너지는 측면이다. 또 하나는 그들의 우정이 '목소리'라는 신체적 기관을 매개로 이루어진다는 측면이다. 정신분석의 관점에서 보면, 티어의 목소리는 그들 사이에서 성적 만족을 가능케 하는 일종의 '성감대'(erotogenic zone)가 된다. 인간의 섹슈얼리티를 "부분 충동"(partial drive)의 만족이라고 분석하는 정신분석의 통찰은 티어의 목소리를 통한 위반의 섹

슈얼리티를 설명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성기적'(genital) 결합으로서의 이성애적 섹슈얼리티를 전복시키는 의미를 지닌다.

무엇보다도 젠더 측면에서 볼 때 분쉬, 조니, 닥터 아치, 하사니, 오텐버그 등과의 우정의 매개가 되는 티어의 목소리는 '남성적이지도 여성적이지 않은' "불완전한 중간 목소리"(a faulty middle voice)이다(252).[12] 목소리의 특징 이외에, 티어의 '젠더 문제'(gender trouble)는 문스톤에서 일어난 작은 소동과도 연관된다. 티어는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있을 콘서트에서 노래를 부르고 싶었지만, 그녀는 지나치게 "남자들과 제멋대로 군다"는 이유로 노래 파트에서 제외된다(55). 티어 대신 솔로 노래를 하게 된 릴리 피셔(Lily Fisher)는 늘 핑크 드레스를 입지만, 티어는 "파란색 장식띠"를 즐겨 착용한다. 이런 티어는 전통적인 젠더 규범을 고수하는 문스톤 사람들 사이에서 도발적으로 보인다. 더구나 시카고에서 티어를 도살장에 데리고 간 하숙집 남자는 여자들이 도살장면을 보면서 일반적으로 기절을 하거나 남자의 팔을 붙잡거나 하는 것처럼 티어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정작 티어의 놀라울 정도의 침착함을 보고 실망한다. 이와 같은 티어의 젠더 위반에 대한 캐더의 재현은 팬터 협곡에 티어와 프레드와 함께 있는 장면에서 극대화된다.

> 크림색 낭떠러지 반대편의 벼랑 위에서 빛처럼 날쌔게 움직이는 두 형상이 있는데, 그들은 사냥감에 완전히 정신을 잃은 채, 호리호리하고 민첩한 모습을 하고 있다. 그들은 마치 두 소년 같았다. 둘 다 모

12) 캐더가 좋아했던 오페라 가수 올리브 프렘스타드의 목소리도 단순히 여성적이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녀는 "맡는 역할에 따라 콘트랄토에서 소프라노까지 오간"(passed from a contralto to a soprano voice dependent upon the operatic role she was to play) 가수로 유명하고, 복장이나 매너 또한 평범한 젠더 규범을 넘어선다(Boutry 195).

자도 쓰지 않고 흰 셔츠를 입고 있다. (262)

There on the promontory, against the cream-colored cliff, were two figures nimbly moving in the light, both slender and agile, entirely absorbed in their game. They looked like two boys. Both were hatless and both wore white shirts.

티어와 프레드는 "두 형상" 혹은 "두 소년"이라 표현되고, 이는 젠더 규범에 종속되지 않은 채, 프레드와 티어 사이를 단순히 이성애적 관계로 보는 것을 넘어서 '동성적' 관계로 볼 수 있게 해주는 여지를 준다.

『종달새의 노래』 속 '위반의 섹슈얼리티'의 의미를 완성시키는 두 번째 예는 티어의 '목소리'의 특별함이다. 티어의 목소리는 대부분의 어른 친구들에게 그들의 욕망을 일깨우는 독특한 역할을 한다. 캐더 자신이 동시대 유명한 오페라 가수인 프렘스타드의 목소리에 끌렸듯이, 티어의 친구들도 티어의 목소리에서 '이상한 방식'(queer manner)의 만족을 얻는다. 예컨대 어린 시절 티어에게 피아노를 가르쳤던 분쉬는 도시에서 오케스트라 연주를 했지만 무일푼으로 해산된 후, 문스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 이외에 그 어떤 것에도 흥미를 느끼지 못했었다. 그러나 티어로 인해 그는 "무언가 다른 것을 희망하게 되는" 자신을 보고 놀란다(30). 특히 하사니의 음악수업은 목소리에 (비)성적인 의미가 내포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하사니는 "그녀의 목에 왼손을 놓고 … 그 후두 위에 섬세한 손가락 끝을 올려놓았다. … 그는 그녀의 목에 다시 손을 올려놓은 채 눈을 감고 머리를 숙인 채 앉아 있다." 하사니는 "그녀가 그 어떤 것보다도 그를 더욱 더 자극시키기 때문에 … 자기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 티어와 함께 있는 시간을 고대했다." 그리고 티어가 가고 나면 "그의 머리는 흥분 상태"에 빠진다(163-65). 하사니와 티어의 수업 장면은 쉐릴 하비슨(Sherrill Harbison)

의 주장처럼, "성적 자극으로 가득 차있다"고 할 수도 있다(153).[13] 하사니는 부인이 아니라, 티어와 함께 있을 때 더욱더 활기를 띤다. 티어 역시 하사니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한 기분을 맛본다. 하사니는 티어의 목소리에 대해 "건강하고 강력한 신체기관"으로 표현하며(165), 가수로서의 그녀의 소명에 대해 조언해준다. 그는 티어에게 "아름답고 힘 있는 … 네 안의 그것"을 인식하라고 말한다(183). 목소리를 통한 하사니와 티어의 교감은 규범적 이성애의 관점에서 볼 때, '성적 이탈'(sexual deviance)로 읽힐 수 있다.

『종달새의 노래』 속 "성적 이탈"은 단순한 이탈이 아니라 동시대의 "이성애 규범(heteronormativity)에 의문을 제기하는 방식"이 된다(Lindemann 77). 지그문트 프로이드(Sigmund Freud)와 자크 라캉(Jacques Lacan)의 정신분석학의 관점에서 보면, '성적 이탈'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섹슈얼리티의 특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라캉의 주장에 따르면, 목소리에서 파생되는 '쾌'는 충동의 만족으로서, 인간의 충동은 근본적으로 "부분 충동"(partial drive)이다(Lacan 180). 충동이란 항상 금지를 모른 채 만족을 추구한다. 라캉적 의미에서 티어의 목소리는 충동의 만족을 얻는 장소로서 '성감대' 역할을 한다. 또한 인간의 충동은 기본적으로 "다형적으로 도착적"(polymorphously perverted)인 특징이 있다(Freud 191). 섹슈얼리티와 관련된 정신분석의 통찰을 빌리면, '목소리'를 통한 충동의 만족이란 "도착적"이며, 그렇기 때문에 '성기적' 결합에 근거한 이성애 규범에 대해 도전적이다.

"다형적으로 도착적인" 충동의 만족으로서 인간의 섹슈얼리티

13) 쉐릴 하비슨(Sherrill Harbison)은 음악 수업 장면에 대해 성적 의미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하사니는 새로이 발견한 목소리를 평가하기 위해 티어의 목에 손을 올려놓은 채, 마치 처녀와 함께 하는 연인처럼 반응한다"(Harsanyi, laying his hand on Thea's throat to evaluate the newly-discovered voice, responds to the experience like a lover with a virgin)(153).

문제는 결코 규범적 이성애 결합으로 환원될 수 없으며, 바로 이런 점에서 티어의 목소리는 '위반'의 의미를 지닌다. '도착적' 만족을 가능하게 하는 목소리, 그리고 그것이 매개가 되는 우정 혹은 사랑은 이성애 규범에 의해 쉽게 길들이거나 억압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위반적 의미가 있다.

분쉬, 닥터 아치, 하사니, 그리고 오텐버그와 티어가 형성하는 우정은 음악을 매개로 형성된 관계이다. 이것은 성적/비성적이라는 이분법적 구분을 넘어서는 위반을 통해 이성애적 결합의 규범에서 자유로운 '퀴어적' 관계를 가능하게 한다. 이와 같은 위반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재현이 가능했던 것은 젠더 차별이 투영되는 결혼 관계가 여성 예술가의 탄생에 걸림돌이 된다는 작가의 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성애적 결혼 관계에 대한 부정[14]과 '음악'과 '음식' 같은 정서적 유대 관계에 대한 긍정은 캐더의 전기적 사실에서 유추가능하다. 린드먼이 『종달새의 노래』에 대해 "퀴어성의 유토피아적 가능성"을 보여준 작품이라고 주장하는 사실에서 볼 수 있듯이, 이성애 규범에 대한 '위반의 섹슈얼리티' 주제는 『종달새의 노래』의 중요한 한 가지 축이다.

요컨대 『종달새의 노래』에는 티어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한편으로는 인종주의와 국가주의를 토대로 한 '우생학적 건강함'의 주제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위반의 섹슈얼리티'의 문제가 긴장의 관계 속에 있다. 티어의 목소리는 노르딕계의 우생학적 자질의 하나로서 티어 개인적으로는 오페라 가수로서의 성공을, 국가적으로는 발전된 미래를 보장해주는 매개의 역할을 한다. 미국의 미래를 책임질 '명백한 운명'을 타고난 노르딕계 소녀의 신체적 자질로서 티어의 목소리는 '가난한 떠돌이', '병든 소녀', 그리고 멕시코인과

14) 이사벨 맥클렁의 약혼에 대해 캐더가 매우 실망했다는 사실은 우정과 결혼에 대한 캐더의 태도를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북미 인디언 등의 '타 인종'으로 재현되는 '부적격자들'(the unfit)과 그녀를 차별화해준다. 그러나 또한 티어의 목소리는 '동성적 우정'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매개가 됨으로써 "제3의 연대"를 가능하게 하고, 캐더 시대의 성적·젠더적 규범에 단순히 복종하지 않으면서 그 규범에 대한 대안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에필로그」 이전까지 티어의 성장 스토리는 혈통을 기반으로 한 우생학적 '건강함'의 축과 섹슈얼리티를 기반으로 한 '건강하지 않음'의 축이 교차하고 있다.

4. "미래 없음"에 대한 불안

『종달새의 노래』는 6개의 긴 본문과 짧은 「에필로그」(Epilogue)로 이루어져 있다. 흥미롭게도 가족과 사회로부터 분리되어 예술가로서 성공을 거두는 과정에 초점을 둔 여섯 부분의 본문 내용과 아주 다르게, 「에필로그」는 갑자기 티어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다. 오페라 가수로 성공한 티어의 결혼이 덴버시 신문에 게재된 것이다. 티어의 성공과 결혼에 대한 「에필로그」는 『종달새의 노래』의 본문과의 관계에서 혹은 소설 전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종달새의 노래』를 소개하는 서문에서 샤리스타니안은 "주인공을 결혼시킨 것이 1915년 독자들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 여성의 행복은 결혼을 통해서 완전해진다는 기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았다(xxiv).[15] 주지하다시피, 동시대의 우생학적 관점

15) 특히 현대작품에 드러난 임신과 출산의 문제를 연구한 베스 위드마이어 카포(Beth Widmaier Capo)의 지적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1910년-30년대 사이에 15세에서 45세 사이의 여성의 죽음의 두 번째 원인이 '출산'인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여성의 출산 통제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결혼이나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 따라서 카포에 따르면, 많은 서사가 "결혼과 모성에 대한 감상적 초상을 지지했으며, … 그러한 규범에

에서 티어의 성공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노르딕계' 출신의 음악적 재능을 타고난 백인 여자의 성공은 우생학적 관점에서 당연한 이야기가 된다. 결혼의 문제 역시 독일 출신의 남자와 스웨덴 혈통의 여성의 결혼은 우생학적으로 건강한 선택이 된다. 『오 개척자여!』에서 알렉산드라와 카알의 결합이 우생학적으로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종달새의 노래』에서 티어와 오텐버그의 결합도 우생학적으로 이상적인 대안이 된다. 그런데 우월한 인자를 지니는 우월한 인종의 생식을 목표로 하는 우생학은 '이성애적 결혼관계'를 넘어서는 위반의 섹슈얼리티와 긴장관계에 놓이게 된다. 다시 말해 미국의 미래에 대한 염려는 우생학적 불안을 조성하고, 이러한 불안은 이성애 결혼을 포함한 티어의 성공을 전달하는 「에필로그」를 탄생시킨다.

『종달새의 노래』에서 드러나는 '미래에 대한 우생학적 불안'은 "퀴어성"(queerness)과 "미래 없음"의 관계를 보는 리 이델만(Lee Edelman)의 통찰에서 더욱 분명하게 전달된다. 이델만은 『미래 없음: 퀴어 이론과 죽음 충동』(*No Future: Queer Theory and the Death Drive*)에서 현대 문화(예를 들면 에이즈와 동성애를 연결한 영화 《필라델피아》)에서 동성애를 포함한 "퀴어성"이 미래를 단절시키는 이미지로 재현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델만은 "현대 문화 전반에서 퀴어성이란 어린이 그리고 어린 시절의 종말을 가져오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주장하며 '퀴어성'과 "아이 없음"(No child)의 수사를 연결한다(19). 이는 이성애 규범을 뒤흔드는 동성애 관계 혹은 '퀴어성'이 '건강한' 사회의 연속성에 심각한 도전이 된다고 보는 우생학적 불안이 "아이 없음" 혹은 "미래 없음"의 형태로

어긋나는 여자들은 종종 부정적으로 그려질 뿐만 아니라 처벌되기도 했다"(supported sentimental portraits of marriage and motherhood … women who resisted the norm were often portrayed negatively and punished for their sin). 즉 결혼과 모성은 위반해서는 안 되는 규범으로 존재한다(31).

사회에 팽배해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델만의 지적은 1900년대 초 미국사회에 새로운 이주민을 바라보며 가졌던 우생학적 사고가 20세기 후반 동성애에 대한 사고로 여전히 이어져 오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성애'는 '가난'과 '이민자'에 이어 우생학의 표적이 된다. 이와 관련해 웬디 클라인은 『더 나은 인종 만들기』(*Building a Better Race*)에서 20세기 초반의 인종과 젠더 문제와 연관된 우생학 운동이 1930년대 이후 동성애를 비롯한 섹슈얼리티 문제로까지 확장된다고 주장한다. 클라인에 따르면, 20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우생학자들이 결혼과 가족 상담을 통해서 젠더 규범화된 이성애 가족을 확대하는 운동을 펼친다. 이는 우생학적 불안이 현대까지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5. 결론

세기 초에 과학적 인종주의, 소위 우생학적 이념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캐더를 비롯한 동시대인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인종에 대한 과학적 연구임을 밝히는 『위대한 인종의 소멸』과 같은 우생학 저서는 캐더가 『종달새의 노래』를 출간한 바로 이듬해에 출판된다. 특히 북유럽이나 서유럽의 이민자들보다 '가무잡잡한' 동유럽이나 남유럽의 이민자들에 대한 배척의 태도는 '명백한 운명'이라는 국가주의적 이념으로 정치인들의 연설이나 잡지의 칼럼의 형태로 보급된다. 필라델피아와 뉴욕을 오가며 집필활동을 해 온 캐더는 이와 같은 반이민의 경향에 대해서 매우 익숙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민자들의 정착을 다루는 캐더는 단순히 반이민적 정서를 드러내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오 개척자여!』에서 동시대 정신과 의사들이 '다름'을 근거로 이민자를 병원에 가두는 행태에 대해 알렉산드라가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종달새

의 노래』에서 캐더는 멕시코 사람들에 대한 티어 형제들의 인종적 편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무조건적인 인종주의에 대해서는 의식적으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한다. 그러나 『오 개척자여!』와 『종달새의 노래』에서 우생학적 이념은 훨씬 더 미묘한 방식으로 드러난다. 특히 이민(자)에 관해서는 이 두 작품이 북유럽이나 동유럽 이민자들에 대한 우생학적 차이를 보여주거나 혹은 둘 사이의 잡혼에 대해 부정적인 정서를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젠더와 섹슈얼리티의 문제가 인종에 관한 우생학의 이념에 균열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더의 삼부작에 속하는 『종달새의 노래』의 결론은 이 작품이 '명백한 운명'을 지닌 미국인의 미래를 위한 우생학의 영향을 현저하게 반영하는 작품임을 보여준다.

Works Cited

Boutry, Katherine. "Between Registers: Coming In and Out Through Musical Performance in Willa Cather's *The Song of the Lark*." *Legacy* 17.2 (2000): 187-98.

Capo, Beth Widmaier. "Can This Woman Be Saved? Birth Control and Marriage in Modern American Literature." *Modern Language Studies* 34.1/2 (2004): 28-41.

Cather, Willa. *The Song of the Lark*. Oxford: Oxford UP, 2000.

Chauncy, George. *Why Marriage?* New York: Basic Books, 2004.

Dwyer, June. "Disease, Deformity, and Defiance: Writing the Language of Immigration Law and the Eugenics Movement on the Immigrant Body." *MELUS* 28.1 (2003): 105-121.

Edelman, Lee. *No Future: Queer Theory and the Death Drive*. Durham: Duke UP, 2004.

Fletcher, Angus. "Willa Cather and the Upside-Down Politics of Feminist Darwinism." *Frontiers* 34.2 (2013): 114-33.

Freud, Sigmund. “Three Essays on the Theory of Sexuality (1905).” *The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Ed. James Strachy. Vol. 7. London: The Hogarth Press, 1953.

Gilman, Charlotte Perkins. *Herland*. New York: Dover, 1998.

Grant, Madison. *The Passing of the Great Race*. 1918. New York: Arno, 1970.

Harbison, Sherrill. “Cather, Fremstad, and Wagner.” *Willa Cather's New York*. Ed. Merrill Maquire Skaggs. London: Associated UP, 2000.

Herring, Scott. “Catherian Friendship; or, How not to do the History of Homosexuality.” *Modern Fiction Studies* 52.1 (2006): 66–91.

Kline, Wendy. *Building a Better Race: Gender, Sexuality, and Eugenics from the Turn of the Century to the Baby Boom*. Berkeley: U of California P, 2001.

Lacan, Jacques. *The Four Fundamental Concepts of Psycho-analysis*. Ed. Jacques-Alain Miller. Trans. Alan Sheridan. New York: Penguin, 1977.

Lindemann, Marilee. *Willa Cather: Queering America*. New York: Columbia UP, 1999.

Nealon, Christopher. “Affect and Genealogy: Feeling and Affiliation in Willa Cather.” *American Literature* 69.1 (1997): 5–37.

O' Brien, Sharon. “‘The Thing Not Named’: Willa Cather as a Lesbian Writer.” *Signs* 9.4 (1984): 576–99.

Ordover, Nancy. *American Eugenics: Race, Queer Anatomy, and the Science of Nationalism*. Minneapolis: U of Minnesota P, 2003.

O'Sullivan, John L. “Annexation.” *United State Magazine and Democratic Review*. 17.1 (1845): 5–10.

_____. “The Great Nation of Futurity.” *United States Democratic Review* 6.23 (1839): 426–30.

Sedgwick, Eve Kosofsky. *Tendencies*. Durham: Duke UP, 1993.

Selden, Steven. “Transforming Better Babies into Fitter Families: Archival Resources and the History of the American Eugenics Movement, 1908–1930.” *Proceedings of the 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 149.2 (2005): 199–225.

Sharistanian, Janet. Introduction. *The Song of the Lark*. By Willa Cather.

New York: Oxford UP, 2000.
Smith-Rosenberg, Carroll. "The Female World of Love and Ritual: Relations between Women in Nineteenth-Century." *Signs* 1.1 (1975): 1-29.
Spencer, Benjamin T. "A National Literature, 1837-1855." *American Literature* 8.2 (1936): 125-159.
Woidat, Caroline M. "The Indian-Detour in Willa Cather's Southwestern Novels." *Twentieth Century Literature* 48.1 (2002): 22-49.
Woodress, James. "Cather and Her Friends." *Critical Essays on Willa Cather*. Ed. John J. Murphy. Boston: G. K. Hall & Co., 1984.

(투고일: 2020. 10. 29 심사완료일: 2020. 12. 18 게재확정일: 2020. 12. 21)

김미연
소속: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전자우편: meeserin@hanmail.net

[Abstract]

Subversive Sexuality in *The Song of the Lark* and the Eugenic Fear of 'No Future'

Kim, Mee-yeon

This paper aims to inquire the eugenic anxiety manifested in Willa Cather's *The Song of the Lark*. Cather's contemporary eugenics sustained the white nativists' consciousness of the chosen people, so called the Manifest Destiny. Above all, Cather's novel featured by the immigrant people is involved with the contemporary (eugenic) racist hierarchy of the Northern, the Southern Europe/ the Western, the Eastern Europe. This study, first, explores the eugenic representation of the characters and incidents in the novel. Next, the eugenic fear of the future surrounding the issue of the main character's and the author's sexuality is investigated. Specifically, the investigation comprises the different tracks of the hetero- normative sexuality and the perverse, anti-normative sexuality. Consequently, this paper makes it clear that these ambivalent sexualities are the shadow of the eugenic ideology albeit the possibility of achieving the subversive or anti-normative.

Key words: Willa Cather, *The Song of the Lark*, eugenics, the hetero-normative, perverse sexuality